



한국소비자원, ‘사회적 가치 혁신위원회’ 및 ‘시민참여혁신단’ 출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혁신 선도 선포

한국소비자원은 7월 16일 충북 본원에서 ‘사회적 가치 혁신위원회’와 ‘시민참여혁신단’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가 함께 수립한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계획’과 ‘기관 혁신 계획’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은 노사 공동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사회적 가치 혁신위원회와 시민참여혁신단의 발대식을 먼저 진행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혁신 및 지역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생 등 8명이 소비자원 혁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과 평가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상향식 혁신 문화’를 이끌 예정이다.

시민참여혁신단은 국민 중심의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국민의 참여·협력 확대 등의 3대 중점과제를 건의했다. 또 제1차 사회적 가치 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소비자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계획’과 ‘혁신 계획’의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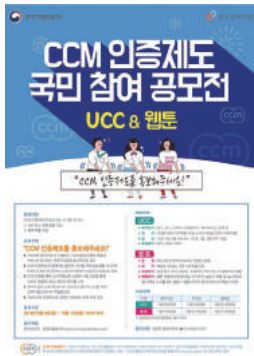
논의했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내부적인 혁신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 환경보전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직원 의식개선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노동조합 이선동 지부장은 “내부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 혁신 추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마련해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CCM 인증제도 UCC & 웹툰 공모전 개최 10월 12일까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중심경영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인증제도의 법정화를 기념하고 CCM의 대국민 인지도 확산을 위해 'CCM 인증제도 국민 참여 공모전(UCC·웹툰)'을 개최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

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165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홍보해주세요'로, CCM 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가치 등을 소개하고, CCM 인증제도와 함께하는 합리적 소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UCC 또는 웹툰을 제작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8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CCM 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작품 중에서 총 13작(UCC 부문 5작, 웹툰 부문 8작)*을 선정해 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최우수상 각 200만 원, 100만 원 등)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소비자중심경영(CCM) 확산을 위한 홍보에 활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ccm-gongmojeon.com)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내 CCM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소비자 중심경영(CCM)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가 확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UCC 5작(최우수 1, 우수 1, 장려 3), 웹툰 8작(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2018년 하계 교사연수 실시 교사 및 교육 전문직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

한국소비자원은 7월 25일부터 27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및 한국소비자원 본원에서 2018년 하계 소비자교육 교사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교사연수에는 소비자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 및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미래의 소비 주체인 청소년소비자 역량 강화 및 학교 소비자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실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가치와 트렌드', '미래의 교육', '인터넷 광고와 소비자 보호'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며 연수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연수기간 중 일회용품 대신에 교육생에게 개인 머그잔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적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습관 함양 및 건전한 소비자 양성을 목적으로 '소비자교육 교사연수'를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소비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대상의 연수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